

##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연구

권성달\*

### 1. 들어가는 말

성서히브리어 학계에서는 지난 100여 년간 지속적으로 ‘명사문장’(nominal sentence)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명사문장과 관련된 논의들은 ‘명사문장의 정의’<sup>1)</sup>에서부터 출발하여 ‘주어와 술어의 정체 파악’, ‘계사’(copula), ‘한정성’, ‘세 구성소 명사문장’, ‘어순’, ‘복합 명사문장’, ‘존재사를 포함하는 문장’, ‘하야(=to be)문장과 관계’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명사문장의 어순(word order)은 매우 중요한 논제라 할 수 있다.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뿐 아니라 ‘술어-주어’의 어순도 많이 나타나므로 정상적인 어순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정상적인 어순이 무엇이냐에 따라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서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1)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기본 어순은 주어-술어이며 그 반대의 순서인 술어-주어의 순서는 술어를 강조하기 위한 순서이다. 2)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이 주어-술어일 때는 주어가 술어의 정체를 파악하는 문

\*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웨스트민스터신학대 학원대학교 구약학 조교수. sungdal61@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802 3657).

1)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주어나 술어가 명사이거나 그 상대어구인 문장’을 명사문장으로 정의하며 ‘술어적 분사’가 들어간 문장도 ‘명사문장’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명사문장’을 ‘동사 없는 문장’(verbless sentence)으로 정의를 내린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성서히브리어의 문장을 ‘동사문장’과 ‘명사문장’(혹은 ‘동사 없는 문장’)으로 양분화시키고 ‘술어적 분사’가 들어간 문장도 ‘명사문장’에 포함시키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서히브리어의 문장을 ‘동사문장’, ‘명사문장’, ‘하야(= to be)문장’, ‘분사문장’으로 분류한다. 이는 ‘하야문장’과 ‘분사문장’에서 문장의 통사구조나 기능에 따라 ‘동사문장’과 ‘명사문장’의 두 속성이 모두 발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sentence)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독립절뿐 아니라 종속절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므로 ‘문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절’(clause)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나 많은 학자들이 그 두 용어를 구분시켜 사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문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장이고 술어-주어의 순서일 때는 주어가 술어를 서술하거나 분류하는 문장이다. 3)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은 주어-술어, 술어-주어로 자유롭다.

이 세 가지 견해는 주어진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에서 어떤 어순을 정상적 혹은 비정상적으로 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비정상적인 어순에 대해서는 대개 ‘강조’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위치와 의미론적 범주에 따라 번역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범주2) | 번역   | 주어선행                           | 술어선행                           |
|------|--|--------------------------------|--------------------------------|
| 이다   | (1) 그는 모세다. <sup>3)</sup><br>(2) 그는 모세다.<br>(3) 그는 모세다.<br>(4) 그는 모세다.       | הוא מֹשֶׁה<br>모세 그             | מֹשֶׁה הוא<br>그 모세             |
| 있다   | (1) 모세는 이집트에 있다.<br>(2) 모세는 이집트에 있다.<br>(3) 모세는 이집트에 있다.<br>(4) 모세는 이집트에 있다. | מֹשֶׁה בְּמִצְרַיִם<br>이집트에 모세 | בְּמִצְרַיִם מֹשֶׁה<br>모세 이집트에 |
| 되다   | (1) 모세는 아버지가 된다.<br>(2) 모세는 아버지가 된다.<br>(3) 모세는 아버지가 된다.<br>(4) 모세는 아버지가 된다. | מֹשֶׁה לְאָב<br>아버지로 모세        | לְאָב מֹשֶׁה<br>모세 아버지로        |

위의 표에서 (1)번의 번역은 주어와 술어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명사문장이 정상적인 어순이라고 보았을 때의 번역이며, (2)-(4)번의 번역은 ‘강

2) 본 연구자는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심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미론적 범주가 크게 세 가지(이다, 있다, 되다)임을 밝힌 바 있다. 권성달, “‘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언어학』 16:2 (2008), 69-91.

3) 성서히브리어는 시제가 없는 언어이며, 문맥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번역이 모두 가능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현재’로 번역했다. 여기서 볼드체와 음영과 밑줄은 ‘강조’나 ‘부각’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이다. 만일 볼드체나 음영이나 밑줄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집트에 있는 이는 바로 모세다’, ‘바로 그가 모세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강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조’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갖는 문장으로 본 번역이다. (2)번은 주어가 강조된 번역이며, (3)번은 술어가 강조된 번역이며, (4)번은 주어와 술어가 모두 강조된 번역이다.

기존의 성서히브리어 학자들이 명사문장의 어순을 보는 견해에는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 어떤 명사문장이 정상적, 혹은 비정상적인 문장인가에 대한 일치점이 없으며,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과, 또한 그들의 견해에 반하는 예외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기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번 번역과 (3)번 번역이 가능하며, (4)번 번역의 경우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과 같이 주어와 술어 이외의 또 다른 요소가 포함된 문장에서 가능한 번역이므로 주어와 술어만을 포함하는 ‘두 구성소 명사문장’에서는 불가능한 번역이다. ‘주어’가 강조된 (2)번 번역의 경우는 기존 학자들 중 명사문장에서 ‘주어’의 강조를 언급하는 학자가 아직 없으므로 새롭게 시도되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에서 어순이 성서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성서히브리어 학계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서히브리어는 2-3천 년 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현대의 언어학적인 이론과 감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서히브리어 학자들마다 명사문장의 어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어느 견해도 예외 없는 견해가 없으며 늘 반론의 여지가 있다. 둘째, 성서히브리어 학계에서 명사문장의 어순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문장의 종류, 시대, 의미론적 범주, 동질문장/비동질문장, 독립절/종속절, 의문문/평서문, 시제<sup>4)</sup>, 한정성, 주어와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 등으로 보고, 이런 각각의 요인들이 명사문장에서의 어순과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얼마나 타당한지 그 적합성도 검토할 것이다.

4) 대다수의 학자들은 성서히브리어가 시제가 없는 언어인 것에 동의하나, 일부 소수 학자들이 성서히브리어에도 시제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시제도 검토 대상으로 두었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한다. 성서히브리어에 대한 많은 이론들은 충분한 자료를 기초하지 않은 이론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2-3천 년 전의 언어를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언어적 이론만으로 추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위험성도 매우 높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그 학자의 직감을 신뢰하기란 때론 어렵다. 어떠한 이론도 예외 없는 이론은 없다고 보며, 그 예외들은 늘 반론의 빌미를 제공한다. 또한 동일한 주제를 놓고도 서로 상반된 이론이 등장하며, 학자들의 일반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서히브리어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많은 이론들이 서로 치열한 공방 중에 있으며, 본 연구의 주제인 명사문장의 어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풍부한 1차 자료를 근거로 한 통계적인 분석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예측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도 감소된다. 통계학에서는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생명이다.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한 통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통계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나 잘못된 통계처리 방법의 사용 또한 위험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자료에 근거한 통계적 방법을 통한 접근은 이론적인 추론을 통한 접근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관련하여 역사서 중 특정 텍스트를 선택하여<sup>5)</sup> 모든 명사문장을 어순과 함께 조사하되 문장의 종류(독립절/종속절, 서술체/대화체/목록, 평서문/의문문), 시대(표준 성서히브리어/후기 성서히브리어), 의미론적 범주(이다/있다/되다), 문장의 성격(동질문장/비동질문장), 시제(과거/현재/미래), 한정성, 주어와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 등이 명사문장의 어순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만일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명사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할 것이다.

5) 본 연구를 위해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를 샘플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연구 주제인 명사문장의 어순이 두 시대(표준 성서히브리어 시대와 후기 성서히브리어 시대)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는가를 조사해 보기 위함이다. 샘플로 선정된 성경이 두 시대를 대변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으나, 두 시대의 성서히브리어는 ‘단어’의 사용 빈도수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무엘서/열왕기서와 역대서가 두 시대를 대변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책들을 보라. R. Polzin, *Late Biblical Hebrew: Toward an Historical Typology of Biblical Hebrew Prose* (Missoula.: Scholars Press, 1976); A. Bendavid, *Parallels in the Bible* (Jerusalem: Carta, 1972); Young Ian,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3).

자료 수집과 분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관련 소프트웨어들인 어코던스 9.5, 바이블웍스 9.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7이 중요한 도구들로 사용된다. 특히 본 연구에 있어서 어순과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계 전문 소프트웨어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가 사용된다.<sup>6)</sup> 이러한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수천 개의 문장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들이며, 통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3. 학자들의 견해

본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 성서 학자들의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하며, 국외 히브리어 학자들 중에서도 본 주제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룬 학자는 많지 않다. 본 주제와 관련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기본 어순은 주어-술어이며, 그 반대의 순서인 술어-주어의 순서는 술어를 강조하기 위한 순서이다. 이 견해는 가장 오래된 견해로서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어순은 주어-술어이며, 그 외의 순서는 모두 강조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 알브레흐트(C. Albrecht, 1888), 게제니우스(W. Gesenius, 1910), 호프타이저(J. Hoftijer, 1973), 메르베(C. H. J. Merwe, 1999), 부쓰(R. Buth).

(2)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이 주어-술어일 때는 주어가 술어의 정체를 파악하는 문장이고, 술어-주어의 순서일 때는 주어가 술어를 서술하거나

6)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이라는 통계학 기술을 사용하며, 교차분석은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s)를 분석하기 위해 한 변수의 범주를 다른 변수의 범주에 따라 빈도를 교차분석하는 교차표를 작성하고 두 변수 간의 독립성과 관련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심장병에 더 잘 걸릴까?”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화를 내기 위해 움츠리는 정도를 측정한 값(Spielberger Trait Anger Scale)과 심장병(CHD - coronary heart disease) 두 변수를 사용하여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인데 카이제곱(Chi-Square)과 P-값(P-Value)이라는 수치를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이와같은 분석을 위해 SAS와 같은 전문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P-값이 0.01보다 적으면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스토크스(M. E. Stokes, C. S. Davis, and G. G. Koch, *Categorical Data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Cary: SAS Institute Inc., 1995] 18-23, 59-79)와 무어(D. S. Moore, *Statistics Concepts and Controversies*, 5th ed.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2001], 438-445, 469-484)를 보라.

분류하는 문장이다.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인 학자는 앤더슨으로, 그는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을 정체과약적(identification) 문장과 분류(classification) 문장으로 나누고, 정체과약적 문장은 주어-술어의 순서를 갖고 분류 문장일 경우에는 술어-주어의 순서를 갖는다고 한다.<sup>7)</sup>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 앤더슨(F. I. Andersen, 1970), 월키-오코너(Waltke & O'Connor, 1990), 쯔비(T. Zewi), 윌리엄스(R. J. Williams, 2007).

(3)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은 주어-술어, 술어-주어로 자유롭다. 이런 견해를 가지는 대표적인 학자는 무라오카로, 그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다. 창세기, 사사기, 사무엘상의 총 453문장에 대한 통계조사(단순 통계)를 하여 주어-술어의 어순(313개)과 술어-주어의 어순(140개)을 제시하며, 어순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을 주장한다.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 무라오카(T. Muraoka, 1985), 데이비슨(A. B. Davidson, 1985), 블라우(J. Blau, 1993), 그로스(W. Gross, 1999).

#### 4. 어순 결정 요인의 자료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연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는 모든 성서히브리어 문장을 1차 샘플자료로 선택하여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선택된 텍스트에서 동사문장, 명사문장, 하야문장, 분사문장의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2>

| 문장종류 | 동사문장  | 명사문장  | 하야문장 | 분사문장 | 기타문장 <sup>8)</sup> | 합계   |
|------|-------|-------|------|------|--------------------|------|
| 빈도수  | 7084  | 1135  | 549  | 353  | 87                 | 9208 |
| 백분율  | 76.9% | 12.3% | 6.0% | 3.8% | 0.9%               | 100% |

7) 여기서 ‘정체과약 문장’이란 ‘그는 모세다’와 같이 주어와 술어의 지시물(referent)이 동일한 문장을 말하며, ‘분류 문장’이란 ‘그는 히브리인이다’, ‘그는 위대하다’ 등과 같이 주어와 술어의 지시물이 동일하지 않는 문장을 말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나 무라오카는 ‘분류’ 대신 ‘서술/묘사’(descrip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동질문장’, ‘비동질문장’ 등의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8) 여기서 기타 문장이란 예쉬(עֵשׂו) 아인(אֵינ) 히네(הִנֵּה) 오드(אֹד)를 포함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위 표에서 조사된 총 9208문장 중 12.3%에 해당하는 1135개의 명사문장을 문장 성분(주어, 술어 등)의 개수에 따라 분류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lt;표 3&gt;

| 문장 성분의 개수에 따른 분류 | 한 구성소 명사문장 | 두 구성소 명사문장 | 세 구성소 명사문장 | 합계   |
|------------------|------------|------------|------------|------|
| 빈도수              | 151        | 968        | 16         | 1135 |
| 백분율              | 13.3%      | 85.3%      | 1.4%       | 100% |

세 구성소 명사문장은 주어와 술어 외에 제3의 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제3의 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주제가 방대하므로 따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9)</sup> 한 구성소 명사문장은 주어나 술어가 생략되어 한 성분만 나타나므로 주어와 술어의 순서를 다루는 본 연구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어와 술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968개의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968개의 두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순서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lt;표 4&gt;

| 주어와 술어의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빈도수        | 646   | 322   | 968  |
| 백분율        | 66.7% | 33.3% | 100% |

위 표에 따르면 두 구성소 명사문장의 어순은 ‘주어-술어’가 ‘술어-주어’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정상적인 어순은 ‘주어-술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술어-주어’의 어순이 33.3%나 되기 때문이다.<sup>10)</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변수가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았다.

9)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보라. 권성달, “성서히브리어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3 (2013), 7-33.

10) 통계학 학계에서 대부분 인정하는 유의 수준은 ‘0.05’인데(최소주의자들은 ‘0.01’을 주장하기도 함) 이는 어떤 현상이 95%를 넘을 경우(최소주의자에 의하면 99%) ‘그렇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4.1. 서술체/대화체/목록

문장의 종류 중 서술체/대화체/목록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sup>11)</sup>

<표 5> Chi-Square 54.9051 P-Value <.0001

| 서술체/대화체/목록과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서술체            | 291<br>67.2% | 142<br>32.8% | 433<br>100% |
| 대화체            | 144<br>52.0% | 133<br>48.0% | 277<br>100% |
| 목록             | 209<br>82.3% | 45<br>17.7%  | 254<br>100% |
| 합계             | 644<br>66.8% | 320<br>33.2% | 964<br>100% |

<표 5>를 통계 전문 프로그램인 SAS에서 교차분석을 해보면 서술체/대화체/목록과 어순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술체/대화체/목록이라는 변수는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SAS의 분석은 세 변수를 합쳐서 분석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변수가 더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세 변수를 각각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에 의하면 서술체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술어-주어’의 어순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며, 이는 <표 4>에 나타난 비율과 비슷하다. 대화체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과 ‘술어-주어’의 어순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목록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술어-주어’의 어순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서술체가 아닌 대화체와 목록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화체와 목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대화체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어순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11) 서술체/대화체/목록과 어순에 대한 고려에서는 운문으로 분류된 네 문장이 제외되었다. 여기서 ‘목록’이란 ‘...의 아들은 ...이다’와 같이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문장의 형식을 말한다.

&lt;표 6&gt; Chi-Square 11.2678 P-Value 0.0237

| 대화체 종류와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기도문        | 8<br>32.0%   | 17<br>68.0%  | 25<br>100%  |
| 서술적        | 83<br>61.0%  | 53<br>39.0%  | 136<br>100% |
| 설명적        | 28<br>41.8%  | 39<br>58.2%  | 67<br>100%  |
| 예언적        | 3<br>50.0%   | 3<br>50.0%   | 6<br>100%   |
| 의문적        | 22<br>51.2%  | 21<br>48.8%  | 43<br>100%  |
| 합계         | 144<br>52.0% | 133<br>48.0% | 277<br>100% |

예언적, 의문적 대화에서는 <표 4>의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서술적인 대화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설명적인 대화나 기도문에서는 ‘술어-주어’의 어순이 높게 나타났다. 즉 예언적, 의문적, 서술적인 대화는 어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설명적인 대화나 기도문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목록의 경우 어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어와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가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술어가 지시대명사와 고유명사구와 수사일 때는 항상(100%) ‘술어-주어’의 어순을 갖는다. 주어가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쿨(구)일 때는 항상(100%) ‘주어-술어’의 어순을 갖는다. 또한 술어가 접미명사일 경우는 ‘술어-주어’의 어순(82.4%)이 ‘주어-술어’의 어순(17.6%)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서술체/대화체/목록이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4.2. 시대

표준 성서히브리어 시대와 후기 성서히브리어 시대에 따라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sup>12)</sup>

12) 여기서 표준 성서히브리어 시대와 후기 성서히브리어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바벨론 유수로

<표 7> Chi-Square 16.2285 P-Value <.0001

| 시대와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표준 성서히브리어 | 253<br>59.8% | 170<br>40.2% | 423<br>100% |
| 후기 성서히브리어 | 393<br>72.1% | 152<br>27.9% | 545<br>100% |
| 합계        | 646<br>66.7% | 322<br>33.3% | 968<br>100% |

<표 7>에서 SAS로 교차분석을 해보면 시대와 어순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대와 어순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서술체/대화체/목록과 어순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후기 성서히브리어에 해당하는 ‘역대상’에는 목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표준 성서히브리어에 해당하는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에는 목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표준 성서히브리어와 후기 성서히브리어의 서술체/대화체/목록 비율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러므로 후기 성서히브리어에서 역대상을 제외한 역대하만 다시 조사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8> Chi-Square 0.0086 P-Value 0.9263

| 시대와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표준 성서히브리어          | 253<br>59.8% | 170<br>40.2% | 423<br>100% |
| 후기 성서히브리어<br>(역대하) | 98<br>59.4%  | 67<br>40.6%  | 165<br>100% |
| 합계                 | 351<br>59.7% | 237<br>40.3% | 588<br>100% |

역대하의 자료만 조사해 보았더니, 표준 성서히브리어에서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SAS의 교차분석에서도 시대와 어순이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시대는 어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표준 성서히브리어 시대에 해당하며 역대상과 역대하는 후기 성서히브리어 시대에 해당한다.

13) 254개의 문장 중 10개의(3.9%) 문장만이 표준 성서히브리어 시대에서 나타나고 나머지는 후기 성서히브리어에 해당하는 ‘역대상’에서(96.1%) 나타난다.

### 4.3. 명사문장의 의미론적 범주

명사문장의 의미론적 범주와 어순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의미론적 범주에 따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9> Chi-Square 1.0340 P-Value 0.5963

| 의미론적 범주와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이다          | 471<br>66.2% | 241<br>33.8% | 712<br>100% |
| 있다          | 170<br>68.0% | 80<br>32.0%  | 250<br>100% |
| 되다          | 5<br>83.3%   | 1<br>16.7%   | 6<br>100%   |
| 합계          | 646<br>66.7% | 322<br>33.3% | 968<br>100% |

SAS의 교차분석에 의하면 명사문장의 의미론적 범주는 어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 있는 의미론적 범주 ‘이다’와 ‘있다’의 비율은 전체 평균과 비슷하므로 어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되다’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83.3%로 전체 평균인 66.7%보다 높게 나타나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빈도수가 높지 않아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명사문장의 의미론적 범주는 어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4.4. 동질문장/비동질문장

명사문장에서 동질문장과 비동질문장은 의미론적 범주 중 ‘이다’의 범주만 해당이 되며 동질문장/비동질문장이라는 변수가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0> Chi-Square 110.0201 P-Value <.0001

| 동질/비동질과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동질문장       | 278<br>87.2% | 41<br>12.9%  | 319<br>100% |
| 비동질문장      | 188<br>49.6% | 191<br>50.4% | 379<br>100% |
| 합계         | 466<br>66.8% | 232<br>33.2% | 698<br>100% |

동질문장/비동질문장과 어순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질문장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술어-주어’의 어순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비동질문장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과 ‘술어-주어’의 어순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동질/비동질문장은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사용하는 동질문장과 비동질문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체파악문장(identification)과 분류문장(class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체파악문장(동질문장)에서는 ‘주어-술어’의 순서를 갖고 분류문장(비동질문장)에서는 ‘술어-주어’의 순서를 갖는다고 한다. 동질문장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므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으나,<sup>14)</sup> 비동질문장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과 ‘술어-주어’의 어순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므로 그들의 결론은 우리의 자료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4.5. 독립절/종속절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이 독립절이나 종속절이나 하는 것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1> Chi-Square 26.2739 P-Value <.0001

| 독립절/종속절과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독립절         | 601<br>69.4% | 265<br>30.6% | 866<br>100% |
| 종속절         | 45<br>44.1%  | 57<br>55.9%  | 102<br>100% |
| 합계          | 646<br>66.7% | 322<br>33.3% | 968<br>100% |

독립절/종속절과 어순에서는 두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절에서는 전체 비율과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으나, 종속절에서는 ‘술어-주어’의 어순이 ‘주어-술어’의 어순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절 내에서 종속절의 종류(원인절, 목적절, 관형절 등)와 어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더니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절 내에서

14) 동질문장에서 ‘주어-술어’의 어순이 87.2%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정체파악문장(동질문장)에서는 주어-술어의 순서를 갖는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각주 9번을 보라.

의미론적 범주는 어순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Chi-Square 19.1693 P-Value <.0001

| 의미론적 범주와 어순<br>(종속절 내에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이다                       | 24<br>31.6% | 52<br>68.4% | 76<br>100%  |
| 있다                       | 20<br>80.0% | 5<br>20.0%  | 25<br>100%  |
| 되다                       | 1<br>100%   | 0<br>0%     | 1<br>100%   |
| 합계                       | 45<br>44.1% | 57<br>55.9% | 102<br>100% |

의미론적 범주 ‘되다’의 경우 빈도수가 너무 낮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고, ‘이다’의 경우 ‘술어-주어’의 어순이 전체적인 비율보다 12.5% 더 높은 반면, ‘있다’의 경우 ‘주어-술어’의 어순이 ‘술어-주어’의 어순보다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문장의 의미론적 범주와 어순과의 관계를 독립절/종속절의 변수와 함께 살펴보았더니, ‘이다’와 ‘되다’의 범주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있다’의 변수에서는 ‘독립절’에서는 전체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종속절’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80%로 ‘술어-주어’의 비율(20%)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미론적 범주와 어순과의 관계에서는 ‘있다’의 범주 중 ‘종속절’에서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종속절 내에서 동질문장/비동질문장의 변수 역시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Chi-Square 17.0262 P-Value <.0001

| 동질/비동질과 어순<br>(종속절 내에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동질문장                    | 11<br>84.6% | 2<br>15.4%  | 13<br>100% |
| 비동질문장                   | 14<br>24.1% | 44<br>75.9% | 58<br>100% |
| 합계                      | 25<br>35.2% | 46<br>64.8% | 71<br>100% |

중속절 내에서 동질문장은 독립절과 중속절을 모두 포함한 전체 비율과 비슷하게 어순의 비율이 나타났으나 비동질문장에서는 ‘술어-주어’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4.6. 의문문/평서문

의문문/평서문과 어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4> Chi-Square 15.1959 P-Value <.0001

| 의문문/평서문과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의문문         | 18<br>40.0%  | 27<br>60.0%  | 45<br>100%  |
| 평서문         | 628<br>68.0% | 295<br>32.0% | 923<br>100% |
| 합계          | 646<br>66.7% | 322<br>33.3% | 968<br>100% |

의문문/평서문과 어순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서문의 경우 <표 4>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의문문의 경우 ‘술어-주어’의 어순이 ‘주어-술어’의 어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술어-주어’의 어순을 갖는 총 27개의 의문문이 의문사를 갖는 경우가 19개(70%)이며 이런 현상은 의문사가 문두에 오는 성질과 의문문이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의문문/평서문에서 평서문은 어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의문문은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4.7. 시제

시제와 어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lt;표 15&gt; Chi-Square 38.2163 P-Value &lt;.0001

| 시제와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과거     | 466<br>73.4% | 169<br>26.6% | 635<br>100% |
| 현재     | 162<br>53.1% | 143<br>46.9% | 305<br>100% |
| 미래     | 18<br>64.3%  | 10<br>35.7%  | 28<br>100%  |
| 합계     | 646<br>66.7% | 322<br>33.3% | 968<br>100% |

시제와 어순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과 ‘술어-주어’의 어순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미래(64.3%)와 과거(73.4%)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술어-주어’의 어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제가 어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다른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술체/대화체/목록과 어순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대화체는 두 어순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서술체(67.2%)와 목록(82.3%)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술어-주어’의 어순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술체(87.5%)와 목록(89.4%)에서는 과거 시제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대화체에서는 현재 시제가 84.7%로 많이 나타났다.

독립절/종속절과 어순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종속절이 ‘술어-주어’의 어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독립절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많이 나타났고 과거 시제가 많이 나타났으며(69.2%), 종속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많이 나타났다(63.7%).

의문문/평서문과 어순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의문문에서 ‘술어-주어’의 어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평서문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많이 나타났다. 의문문에서는 현재 시제가 매우 많이 나타났고(97.8%), 평서문에서는 과거 시제가 많이 나타났다(68.9%).

따라서 시제는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4.8. 한정성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이 어순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6> Chi-Square 63.3605 P-Value <.0001

| 한정성과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주어>술어 <sup>15)</sup> | 213<br>53.8% | 183<br>46.2% | 396<br>100% |
| 주어=술어                | 319<br>80.4% | 78<br>19.6%  | 397<br>100% |
| 주어<술어                | 0            | 0            | 0           |
| 합계                   | 532<br>67.1% | 261<br>32.9% | 793<br>100% |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과 어순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와 술어의 어순에 관계없이 술어의 한정성이 주어의 한정성보다 높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명사문장에서 주어와 술어를 선정할 때의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경우라도 술어의 한정성이 주어의 한정성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16)</sup>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술어-주어’의 어순보다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주어의 한정성이 술어의 한정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두 어순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질문장/비동질문장과 어순의 상관관계와 비슷한 것으로 이는 동질문장/비동질문장은 한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은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4.9. 주어와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

주어와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와 어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어와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의 빈도수가 높은 것을 위주로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15) ‘주어>술어’란 주어의 한정성이 술어의 한정성보다 높은 것을 말하고, ‘주어=술어’란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주어<술어’란 술어의 한정성이 주어의 한정성보다 높은 것을 말한다.  
 16) 한정성과 주어, 술어 선정에 관하여는 줄저(권성달,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에서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29 [2011], 7-32.)를 보라.

## 4.9.1. 주어의 형태론적 범주

&lt;표 17&gt; Chi-Square 108.9025 P-Value &lt;.0001

| 주어의 형태론적 범주와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고유명사구           | 146<br>90.1% | 16<br>9.9%  | 162<br>100% |
| 고유명사            | 83<br>61.9%  | 51<br>38.1% | 134<br>100% |
| 인칭대명사           | 69<br>53.1%  | 61<br>46.9% | 130<br>100% |
| 접미명사            | 70<br>55.1%  | 57<br>44.9% | 127<br>100% |
| 접미명사구           | 28<br>93.3%  | 2<br>6.7%   | 30<br>100%  |
| 비한정명사           | 48<br>49.5%  | 49<br>50.5% | 97<br>100%  |
| 비한정명사구          | 12<br>66.7%  | 6<br>33.3%  | 18<br>100%  |
| 한정명사            | 62<br>65.3%  | 33<br>34.7% | 95<br>100%  |
| 한정명사구           | 23<br>60.5%  | 15<br>39.5% | 38<br>100%  |
| 지시대명사           | 36<br>94.7%  | 2<br>5.3%   | 38<br>100%  |
| ‘쿨’(구)          | 39<br>90.7%  | 4<br>9.3%   | 43<br>100%  |

주어의 형태론적 범주와 어순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도 ‘주어-술어’의 어순보다 ‘술어-주어’의 어순이 더 많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으며, 주어가 비한정명사인 경우 두 어순의 비율이 가장 비슷하게 나타났고, 주어가 인칭대명사나 접미명사인 경우에도 두 어순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술어’의 어순이 90% 이상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경우는 지시대명사(94.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접미명사구(93.3%), 쿨구(90.7%), 고유명사구(90.1%)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어의 형태론적 범주는 어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9.2.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

<표 18> Chi-Square 236.2704 P-Value <.0001

|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와 어순 | 주어-술어        | 술어-주어       | 합계          |
|-----------------|--------------|-------------|-------------|
| 전치사구            | 189<br>65.6% | 99<br>34.4% | 288<br>100% |
| 고유명사            | 194<br>92.8% | 15<br>7.2%  | 209<br>100% |
| 고유명사구           | 31<br>83.8%  | 6<br>16.2%  | 37<br>100%  |
| 비한정명사           | 81<br>57.4%  | 60<br>42.6% | 141<br>100% |
| 비한정명사구          | 13<br>61.9%  | 8<br>38.1%  | 21<br>100%  |
| 형용사             | 33<br>53.2%  | 29<br>46.8% | 62<br>100%  |
| 수사              | 36<br>78.3%  | 10<br>21.7% | 46<br>100%  |
| 접미명사            | 15<br>38.5%  | 24<br>61.5% | 39<br>100%  |
| 지시대명사           | 0<br>0%      | 36<br>100%  | 36<br>100%  |
| 의문사             | 0<br>0%      | 23<br>100%  | 23<br>100%  |
| 한정명사            | 21<br>100%   | 0<br>0%     | 21<br>100%  |
| 한정명사구           | 12<br>100%   | 0<br>0%     | 12<br>100%  |
| 부사              | 5<br>35.7%   | 9<br>64.3%  | 14<br>100%  |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와 어순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어의 형태론적 범주와 어순의 상관관계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어가 고유명사나 고유명사구의 경우에는 ‘주어-술어’의 어

순이 고유명사(61.9%)보다는 고유명사구(90.1%)에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술어가 고유명사나 고유명사구일 경우에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고유명사구(83.8%)보다는 고유명사(92.8%)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술어가 전치사구, 비한정명사(구), 형용사, 수사인 경우에는 큰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와 어순의 관계에서는 주어의 형태론적 범주와는 달리 ‘술어-주어’의 어순이 많이 나타났다. 술어가 접미명사(61.5%)나 부사(64.3%)인 경우에는 ‘술어-주어’의 어순이 조금 더 나타났다. 술어가 지시대명사나 의문사인 경우에는 ‘술어-주어’의 어순이 절대적(1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술어가 한정명사나 한정명사구인 경우에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절대적(1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술어의 형태론적 범주는 어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4.10. 앤더슨의 견해에 대한 평가

명사문장의 어순에 대해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앤더슨이다. 그는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법칙을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소개한다.<sup>17)</sup>

법칙1. 주어와 술어가 모두 한정되어 있을 때, 정체과약적 문장<sup>18)</sup>에서는 주어-술어의 순서이다.

법칙2. 정체과약적 문장에서 여분의 대명사는 술어 전에 온다.

법칙3. 분류문장에서 술어-주어의 순서에서는 술어가 주어보다 상대적으로 비한정적이다.

법칙4. 분류문장에서 여분의 대명사는 술어 다음에 오며 법칙2와는 대조를 이루나 법칙3을 지킨다.

법칙5. 분류문장의 상황절은 법칙3, 4와는 대조적으로 주어-술어의 순서를 갖는다.

법칙6. 대명사 접미를 갖는 명사가 술어일 때 주어-술어의 순서(법칙1)는 대명사 접미를 갖는 명사가 한정명사로서 정체과약적 문장이며, 술어-주어의 순서(법칙3)는 대명사 접미를 갖는 명사가 비한정명사로서 분류문장이다.

17) F. I. Andersen,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New York: Abindon Press, 1970), 39-49.

18) 앤더슨이 사용하는 ‘정체과약적 문장’이란 용어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동질문장’이란 용어로 사용한다.

법칙7. 술어가 분사(구)일 때, 평서문에서의 순서는 주어-술어이다.

법칙8. 술어가 분사(구)일 때 술어-주어의 순서는 기원문(precative) 문장에서 선호한다.

법칙9. 평서문의 주어가 부정사일 때 순서는 술어-주어이다. 술어는 항상 비한정명사이다.

위 아홉 개의 법칙 중 법칙2와 법칙4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것이며 법칙7과 법칙8은 분사문장에 대한 것이므로 본 주제와 관련된 법칙은 5개(법칙1, 3, 5, 6, 9)로 그 5개의 법칙을 각각 본 논문의 자료 및 분석과 비교하여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는 명사문장의 어순을 한정성과 동질/비동질문장(정체파악/분류문장)이라는 변수에서 주로 분석하였고 술어가 접미명사일 때와 주어가 부정사일 때만을 고려함으로 다른 많은 경우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법칙1은 대체로 맞으나 특히 술어가 접미명사인 경우 많은 예외가 발견된다.

(3) 법칙3에 대해서는 예외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칙3과 대조를 이루는 법칙5에 대한 평가는 내릴 수 없었다.

(4) 법칙6은 법칙1과 관련된 것으로 많은 예외가 발견되었다.

(5) 법칙9에 해당하는 경우의 문장은 본 논문의 자료에서는 총 9개가 있다. 그 중 8개는 술어-주어의 순서이고, 1개는 주어-술어의 순서이므로 법칙으로 삼기에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 5. 나가는 말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은 단순하게 취급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주어-술어’의 어순(66.7%)이 ‘술어-주어’의 어순(33.3%)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주어-술어’의 어순이 정상적인 어순이라 말할 수는 없다.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다각도로 살펴보아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통계학계의 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본 논문의 분석에서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 경우뿐이다.

(1) 목록 텍스트에서 술어가 지시대명사, 고유명사구, 수사일 때는 ‘술어-주

어'의 어순(100%)을 갖는다.

(2) 목록 텍스트에서 주어가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쿨(구)일 때는 '주어-술어'의 어순(100%)을 갖는다.

(3) 술어가 한정명사나 한정명사구일 때는 '주어-술어'의 어순(100%)을 갖는다.

(4) 술어가 지시대명사나 의문사일 때는 '술어-주어'의 어순(100%)을 갖는다.

앞의 네 가지 경우 외에도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95%를 넘지 않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다', '대체로 그렇다', '낮다', '매우 낮다' 등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명사문장, 어순, 주어/술어, 성서히브리어, 계사.

Nominal Sentences, Word Order, Subject/Predicate, Biblical Hebrew, Copula.

(투고 일자: 2014년 8월 1일, 심사 일자: 2014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8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권성달, “‘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언어학』 16:2 (2008), 69-91.
- 권성달, “성서 히브리어 명사문장에서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29 (2011), 7-32.
- 권성달, “성서 히브리어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3 (2013), 7-33.
- Albrecht, C., “Die Wortstellung im habräischen Nominalsatz”, *ZAW* 8 (1988), 249-263.
- Andersen, F. I.,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New York: Abingdon Press, 1970.
- Bendavid, A., *Parallels in the Bible*, Jerusalem: Carta, 1972.
- Blau, J.,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Wiesbaden: Harrassowitz, 1993.
- Buth, R., “Word Order in the Verbless Clause”,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79-108.
- Davidson, A. B., *Hebrew Syntax*, 3rd ed., Edinburgh: T.& T. Clark, 1985.
- Gesenius, W., Kautsch, E., and Cowley, A. E., *Gesenius’ Hebrew Grammar*, the Late E. Kautsch, ed., A. E. Cowley, rev.,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10.
- Gross, W., “Is There Really a Compound Nominal Clause in Biblical Hebrew?”, *The Verbless Clauses in Biblical Hebrew - Linguistic Approaches*, C. L. Miller, ed., Indiana: Eisenbrauns, 1999, 19-49.
- Hoftijzer, J., “The Nominal Clause Reconsidered” [rev. of F. I. Andersen’s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Vetus Testamentum* 23 (1973), 446-510.
- Merwe, C. H. J. van der, Naudé, Jackie A., and Kroeze, Jan H.,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Moore, D. S., *Statistics Concepts and Controversies*, 5th ed., New York: Freeman and Company, 2001.
- Muraoka, T.,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5.
- Polzin, R., *Late Biblical Hebrew: Toward an Historical Typology of Biblical Hebrew Prose*, Montana: Scholars Press, 1976.
- Stokes, M. E., Davis, C. S., and Koch, G. G., *Categorical Data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Cary: SAS Institute Inc. 1995.
-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Indiana: Eisenbrauns, 1990.

Williams, R. J., *Williams' Hebrew Syntax*, 3rd ed., Revised and Expanded by Beckman, J. C.,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Young Ian,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3.

Zvi, T., "Syntactical Modifications Reflecting the Functional Structure of the Sentence in Biblical Hebrew" (written in Hebrew), Ph.D. Dissertation,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90.

<Abstract>

## **A Study on the Word Order in the Nominal Sentences of Biblical Hebrew**

Sung-Dal Kw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Word order in Biblical Hebrew nominal sentenc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mes that have been addressed for the past 100 years in the discipline of Biblical Hebrew linguistics. It can be said that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word order’ has enormous influenc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because the word order of ‘predicate-subject’ as well as ‘subject-predicate’ frequently occur actually in Biblical Hebrew and the interpretation of texts can differ depending on what is the normal word order. With semantic categories of nominal sentences, definiteness, morphological categories of subjects and predicates, characters of sentences (identification and non-identification sentences), types of sentences (matrix and subordinate clauses, predicative and interlocutory styles, and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sentences), syntactic structures (kinds of sentences, use of particular particles, and use of relative pronouns) etc. as important factors that can have influence on word order in Biblical Hebrew nominal sentences, this study tries to approach word order in Biblical Hebrew nominal sentence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whether, and how far if any, such factors actually have a correlation with word order in nominal sentences.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f word order in Biblical Hebrew nominal sentences based on precise data along with diverse variables, we can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 (1) In prayer texts, different from other interlocutory sentences, the order of ‘predicate-subject’ occurs about twice as much as that of ‘subject-predicate’.
- (2) In list texts, the proportion of ‘subject-predicate’ turns out to be high (82.3%).
- (3)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identification/non-identification sentences and word order.
- (4)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subordinate clauses and word

order.

(5)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interrogative/declarative sentences and word order.

(6)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definiteness and word order.

(7) There is a very high correlation between morphological categories of subjects/predicates and word order. The word order is of ‘subject-predicate’ when the morphological category of the subject is demonstrative pronoun (94.7%), suffixal noun phrase (93.3%), ‘kol’-phrase (90.7%), and proper noun (90.1%).

When the morphological category of the predicate is proper noun (92.8%), the word order is of ‘subject-predicate.’ Also, in cases where the predicate is a definite noun or a definite noun phrase, the word order of ‘subject-predicate’ absolutely accounts for 100%. When the morphological category of the predicate is demonstrative pronoun or interrogative pronoun, the word order of ‘predicate-subject’ absolutely accounts for 100%.

(8) Variables that don’t have influence on word order in Biblical Hebrew nominal sentences are periods (Standard Biblical Hebrew and Late Biblical Hebrew) and semantic categories (simple be, exist, and become). Though tense and word order appear to have a correlation, we can say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ense and word order since such a phenomenon appears because other variables have relations with tense rather than because tense itself has influence on word order.